

기독교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성경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

Application Plan of Bible Storytelling in Writing Educ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이란
서울신학대학교

Ran Lee(iran370@st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의 이념과 인재상에 적합한 글쓰기 교육 형태를 제안하고 그 효과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디지털 글쓰기 개념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성경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디지털 글쓰기” 교육 형태는 크게 두 활동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성경 청취와 묵상이요, 둘째는 미디어 텍스트 창작이다. 첫 활동에는 ‘성경 스토리텔링의 청취와 관찰’, ‘탐구와 묵상’이 포함되며, 두 번째 활동에는 창작을 의미하는 ‘적용과 실천’, 공유를 의미하는 ‘공동체 나눔’이 각각 포함된다. 이러한 교육 형태를 제시하고 난 후, 본 연구는 다음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매체 활용과 상호 작용성의 장점 활용, 둘째, 스토리텔링의 개인 및 공동체의 치유적 효과 활용, 셋째, 글쓰기와 기독교 교육(신학)의 영역 모두의 전문성 확보,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와 글쓰기 영역 모두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로의 확장적 적용이다.

■ 중심어 : | 성경 스토리텔링 | 디지털 글쓰기 | 기독교 대학 글쓰기 지도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riting education paradigm appropriate for the ideology and ideal persons of Christian universities, and to show the effective application plan. For this, this study utilizes the ideas of digital writing in the concept of digital literacy education. The paradigm of “the digital writing education using bible storytelling” consists of two activities. The first one is ‘bible listening and observation,’ and the second one is ‘media text creation and sharing.’ In the first activity, there are two steps: ‘listening and observation of bible storytelling’ and ‘exploration and meditation.’ In the second activity, there are also two steps: ‘application and action,’ and ‘sharing in communities.’ After the suggestion, this study proposes the application plan for the paradigm. They are ‘the utilization of various media and the merit of interaction,’ ‘healing effectiveness in an individual and a community,’ ‘building expertises in both letter writing and Christian education(Divinity),’ ‘building expertises in both letter writing and media literacy,’ and ‘expanded application toward diverse patterns of writing.’

■ keyword : | Bible Storytelling | Digital Writing | Writing Instruction for Christian University |

I. 서론

각 대학마다 글쓰기 지도에 관한 다각적인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단 교양과목이나 교과과목뿐 아니라 각종 비교과 분야에서도 점차 하향화 되어가는 대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이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모든 대학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인재상의 주요 역량인 '의사소통 역량' 특히 글쓰기 역량은 그 이전 중고등 교육 단계에 비하여 매우 전문적인 역량을 필요로 한다.

각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이념이나 목표가 다양하기 때문에 친편일률적인 글쓰기 교육 방향과 그 방법을 논의할 수는 없다. 이는 다양한 교단 배경의 기독교 대학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목적과 인재상을 살펴봄으로 기독교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하나의 예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서울신대의 교육이념은 '진리와 성결'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목적은 '지성, 덕성, 영성이 조화된 글로벌 인재 양성'이다. 이에 따른 세부적 인재상은 '성결한 기독교인, 실천적 봉사인, 융합적 전문인, 창조적 세계인'이다[1]. 이를 살펴볼 때, '성결한 기독교인', 즉 '기독교 영성 추구'를 제외하고는 일반 대학의 교육목표나 인재상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각 교과목과 기독교 영성의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2].

현재 서울신대는 교양과목의 글쓰기 과목 이외에도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글쓰기 코칭과 지도 과정을 비교과로서 운영하고 있다. 이중, '교양 독서와 글쓰기'라는 교양 과목이 본 연구 결과의 가장 혜택을 받을 과목이라 할 수 있다. 본 과목은 융합형 전문인을 인재상의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고, 글쓰기 임상 실습을 통해 책읽기 방법과 글쓰기 방법을 연계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데에 있다[3]. 즉, '읽기'를 통한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며 현실 문제해결력을 고취시키는 일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신대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운영되는 비교

과 글쓰기 지도 과정 역시 교양과목과 연계되어 있으며, 동일한 교육 목표를 가지지만 지난 학기(2018, 1학기)의 경우, 보고서 쓰기, 성경 인물 읽기를 통한 스토리텔링 쓰기, 자아 성찰적 미디어 텍스트 쓰기 등의 프로그램 등을 부가적으로 가졌다.

서울신대의 인재상 및 교육 목표, 글쓰기 관련 과목이나 프로그램들의 성격을 살펴볼 때, 기독교 대학의 글쓰기 과목은 현대인의 표현적 필수 역량인 융합적 글쓰기 능력을 갖추는 것과 더불어 기독교인의 문제해결의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교육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안하는 성경 스토리텔링의 활용 방안은 글쓰기 교양과목과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 프로그램 모두에서 활용되기에 적합하게 구안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기독교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형의 글쓰기 교육은 이 목표와 인재상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독교 이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교육적 활용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대학의 많은 교과목이 기독교 세계관을 품고 있지만 유독 글쓰기 분야는 이를 의사소통의 단순한 기능으로만 여겨 기독교 세계관과의 연계가 부족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글로 쓰여진 성경을 글쓰기 교육의 브레인 스토밍 자료로 적극 끌어안는 것이다.

성경은 75% 이상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전을 의미하는 스토리텔링의 형태로 전달되어 왔다[4]. 조직신학은 이 성경 속 이야기의 함축들을 통일성 있고 체계성을 갖추도록 구성한 것임을 이해한다면, 최근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 공부에 대한 관심이 고무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시사적이라 하겠다[5].

기독교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성경(bible)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이 명백한 명제는 간혹 성경이라는 경전(cannon)이 함축하는 지루한 이미지에 대한 염려로 방해로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는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흥미 있는 교육 방법으로 극복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성경을 활용하여 기독교 대학의 이념에 적합한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되, 문화 텍스트 혹은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접목해 흥미와 효과가 증대된, 신개

님의 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대학들은 기존 글쓰기 방식에 덧붙여 디지털 미디어 활용 글쓰기 교육을 통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교양 교육 및 글쓰기 교육을 통해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20]. 이는 서울신대의 인재상인 ‘성결한 기독교인,’ ‘실천적 봉사인’뿐 아니라 ‘융합적 전문인,’ ‘창조적 세계인’ 실현에도 보다 적합한 교육 방안이 될 것이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기독교 대학 이념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 방안은 무엇인가?

II. 성경 스토리텔링과 글쓰기

스토리텔링은 논리적 글쓰기, 성찰적 글쓰기, 문학적 글쓰기, 실용적 글쓰기 등을 폭넓게 포괄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의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토리텔링 읽기와 쓰기는 다른 글쓰기 형태와 비교해 볼 때, 치료적, 교육적 효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스토리텔링 행위와 그 결과 산출되는 이야기(서사, narrative)는 인간의 기본 담화의 한 양식이다[6]. 스토리텔링이 내레이션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내레이션이 소설 등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행위라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하는 현장(시공간 제약)이 전제되고 미디어가 중요한 핵심이 된다[7]. 어떤 미디어, 즉 어떤 매체에 담아 전달해야 좀 더 흥미 있고 효과적인 전달이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중요하다. 따라서 스토리텔링은 다매체 서사이다[7].

스토리과 스토리텔링이 가장 구별되는 점은 정태성/상호성의 대립이다[8].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스토리가 담화 형태로 변하면서 스토리를 쓰거나 말하는 방식, 즉 스토리텔링의 진행되는 과정에 연구가 집중된다. 따라서 청자 혹은 독자의 반응과 스토리텔러(storyteller)와의 상호작용은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 된다. 같은 이야기도 스토리텔러와 현장 분위기, 매체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와 반응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진행되는 현상의 증시는 형상성과 그 매체, 형식의 다양성을 그 결과로 취하는데 형상화는 변용(deformation)을 동반한다. 같은 스토리가 스토리텔러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변용되는데, 각각의 스토리텔러는 매체와 관습을 개성적으로 사용하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사물을 낯설게 함으로써 독자에게 새로운 생각과 느낌을 유발하기 때문이다[8].

그 효과를 살펴보면, 스토리텔링(말하기, 쓰기)은 교훈과 재미를 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감동, 공감, 소통의 터전이 된다[9]. 스토리텔링 글쓰기는 스토리텔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치료 효과를 거두게 한다.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특별한 자기 정체성과 인지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10].

이처럼 탁월한 치료적,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텔링이 성경 속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성경교육으로 활용되는 스토리텔링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주제, theme), 공동체의 스토리텔링(맥락, context), 그리고 청자의 스토리텔링(구현, Embodiment)이다[11].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형성하실 때 이야기로 소통하셨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정도이다[12]. 하나님은 스토리텔러이시며 또한 스토리의 주제이시다[11].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창조, 타락, 구속에 집중되며, 하나님의 스토리텔링은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를 듣는 존재라는 관계양식, 즉 스토리텔러(storyteller)와 스토리리스너(story-listener)의 관계를 강조하며 전개된다[11].

두 번째로 공동체의 스토리텔링은 맥락을 의미한다. 성경의 스토리는 세세한 사건보다는 경험의 진실성에 관심을 두며[12] 예수님의 스토리텔링도 비유를 통해 청자가 자신들을 벗어나 이야기의 적극적 참여자가 되도록 한다[13]. 예수 부활 이후로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사명 이야기로 전개되어 오늘에 이른다[11].

마지막으로 청자의 스토리텔링은 구현을 의미한다. 개인은 친구약성경의 약속/불신/구원의 순환적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하고 스스로 스토리텔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 스토리는 부분적

으로 우리가 자신과 주변을 관찰하는 거울이며 창문이다[14]. 따라서 연속적 행위가 담보된 청자의 스토리텔링이야말로 스토리를 직접 살게 하는 모형이며 성경 교육의 근거가 된다[11].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의 성경교육의 과정을 탐구한 김영래는 청취(Story-Listening), 탐구(Exploration, Story-Embracing), 실천(Practice, Story-Living)의 세 가지 교육 단계를 제안하였다[11].

‘청취’는 쉼(Schema), 즉 복종하려고 주목하여 듣는 것을 의미하며, ‘탐구’는 이야기의 내면과 외면을 살피는 과정이고, ‘실천’은 이야기를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사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QT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묵상의 과정과 상당히 일치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 묵상은 관찰, 해석, 묵상, 적용의 4단계로 구성된다[15].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도와 나눔을 그 마지막 단계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성경 해석학자인 Vanhoozer는 저자, 독자 부정(denial)과 의미 해체(meaning deconstruction)에 대한 현 포스트모던 세계관의 해석학적 조류[16]를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저자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를 찾아가는 순례자적 해석론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하였다[17].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요, 본래적 의미 구성의 주체이다. 이때 성경 읽기는 성경을 하나님의 의사소통적 의도로 이해하고 이를 기꺼이 따르려는 제자도를 의미하게 된다[18]. 따라서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는 것은 성경 저자이신 하나님(성령)의 의도가 집약된 성경 말씀, 즉 쉼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뜻한다.

Vanhoozer는 나아가 성경의 1차적, 문자적, 작가 의도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일을, 2차적 ‘적용’보다 선행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책임 있는 독자는 발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의미 위에 군림하여 해석적 폭력을 휘두르지 않으며 의사소통 행위로서의 텍스트 목적을 존중한다[17]. Vanhoozer는 인간의 해석 능력의 미완성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최선의 해석을 찾아가기 위한 방법적 다양성을 추구하여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meaning)’를 추구하는 일의 중요성을 가장 첫째에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 이해에 따라오는 ‘적용과 실천’은 1차적 텍스트 의미에서 비롯된 ‘확대된’ 의미, 즉

‘의의(significance)’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19]. 여기서 ‘의의’ 찾기와 실천은 기독교적인 문화작용으로 복음의 수행, 문화적 실천을 의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위의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이를 글쓰기 과정에 적용해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글쓰기의 4단계를 구상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글쓰기의 단계

| 단계 | 성격 | 활동 |
|---------|-------|---|
| 청취 및 관찰 | | • 성경을 듣거나 읽고 순종을 위해 사실적 정보를 읽는다. |
| 탐구 및 묵상 | 의미 찾기 | • 성경의 1차적 의미를 저자, 당시 상황, 장르 정보를 이용해 찾아간다. • 성경 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추출한다. |
| 적용 및 실천 | | • 그 의미를 자신의 삶의 맥락에 적용한다. • 그 스토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된 이야기로 바꾸어 텔링한다. |
| 공동체 나눔 | 의의 찾기 | • 자신의 이야기를 공동체 일원들과 나누면서 피드백 받고 개선한다. •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깨달음대로 실천한다. |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고 다시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써보는 이 과정은 크게 4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청취와 관찰은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거나 들으면서 사실적 정보를 표면적으로 깨닫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인 탐구와 묵상은 성경의 인간 저자와 성령이 본래 의도했던 1차적 의미를 최선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저자 정보, 당시 역사적 맥락, 관습, 문화, 성경의 장르 정보 등을 이용해 최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위의 두 단계는 Vanhoozer가 중시했던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meaning)’를 찾아가는 단계로 일반적 글쓰기에서는 독서, 즉 선행 자료를 통한 ‘사고 넓히기’에 해당된다.

의미가 이해되었다면 이제 Vanhoozer의 용어로 ‘의의(significance)’, 즉 적용과 실천의 단계로 들어서며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글쓰기 단계이다. 우선 성경 스토리에서 발견된 의미를 자신의 삶의 맥락(context)에 적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성경 묵상에서라면 성경 말씀의 깨달음을 자신의 삶에 지식적으로 적용하고 또 이를 일상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지만, 글쓰기의 맥락 안에서 이를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즉, 쓰기를 의미한다. 그 이야기를 자신의 삶의 한

부분에 적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스토리를 풀어내는 것이다. 이때, 글쓰기, 혹은 창작의 형태와 유형은 다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나눔이란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 혹은 글쓰기 집단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 창작한 스토리텔링을 상호작용하며 나누고 피드백 받아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때 다른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받고 자신을 반성하며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III.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링 쓰기

자신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글쓰기가 지루한 작업으로 생각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현대인들의 감성과 시대적 문화에 적합하고 흥미를 유발하는 글쓰기가 가능해진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현 시대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손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블로그, 웹사이트, 비디오, 그림, 사용자 제작의 미디어 텍스트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다. 이 모든 자기표현 양식이 스토리텔링 가능 매체가 된다.

디지털 미디어는 양방향 대화와 참여가 가능한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으며[20] 다수 대 다수라는 웹 커뮤니티 모델로 전환되고 있다. 누구나 온라인 미디어를 만들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주제에 관한 이미지, 텍스트, 소리 등을 조합할 수 있다. 이 디지털 미디어는 현대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디지털화 된 문화 환경에서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주요 문해력(literacy)을 의미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상이한 방식과 형식으로 의미를 만들고 공유하는 능력을 뜻한다[21]. 이는 이질적 맥락에서 지식을 소통,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관련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괄한다.

대학생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온라인 블로그 등에 새 콘텐츠를 스스로 혹은 협력하여 만드는 능력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다른 웹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능력, 디지털 환경의 텍스트에 적절한 읽기와 쓰

기를 수행할 능력, 그리고 연구를 위한 특별한 전략을 사용할 능력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22]. 따라서 이미지, 텍스트, 영상, 소리 등을 일종의 언어로 인식하여 해독하고, 이를 또한 전략적으로 표현하고 매체 기술적으로 공유하며 웹 사용자들과 상호작용해 콘텐츠를 개선하는 능력 모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단순히 미디어 텍스트, 디지털 콘텐츠를 해독, 생산해 내는 과정을 뛰어넘어 이를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과 공유하고 의견 교환 및 협력과정을 통해 새로운 대안까지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폭넓게 의미한다. 2007년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이 매체 언어교육을 정식 도입함으로써 이제 매체 언어는 대학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으로 자리하고 있다[23].

또한 디지털 미디어가 가진 강점이 용이한 상호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업 장면에서 부가적으로 이를 활용한다면 문자 글쓰기의 효과적인 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문자 글쓰기 교육도 역시 가능하게 된다.

이를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글쓰기 교육과 관련시켜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의 단계

| 단계 | 활동 | 활동 |
|---------|----------------|--|
| 정취 및 관찰 | 성경 청취와 묵상 | • 성경을 듣거나 읽고 소중을 위해 사실적 정보를 읽는다. |
| 탐구 및 묵상 | | • 성경의 1차적 의미를 저자, 당시 상황, 장르 정보를 이용해 찾아간다. • 성경 텍스트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추출한다. |
| 적용 및 실천 | 미디어 텍스트 창작과 공유 | • 발견한 의미를 자신의 삶의 맥락에 적용한다. • 한 가지 미디어를 선택해 사용법과 창작법 등을 숙지한다. • 자신의 삶에 적용한 스토리를, 선택한 미디어를 활용해 전략적으로 스토리텔링한다. |
| | | • 영상, 이미지, 소리 등과 더불어 문자 텍스트를 적극 활용하여 게시한다. • 자신이 창작한 미디어 텍스트를 공동체 일원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한 후, 형식, 내용 면 모두에서 피드백 받고 개선한다. |
| 공동체 나눔 | | • 동료와 교수 침식이 이루어진다. • 타인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감상문 형식으로 게시하거나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를 사후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다. •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깨달음 대로 실천한다. |

위의 과정은 [표 1]에서 제시한 첫 두 활동에서 '성경 스토리텔링 청취와 묵상'을 그대로 수행한 후, 본격적인 스토리텔링 글쓰기 과정을 '적용 및 나눔' 단계에서 세부적 활동으로 변형시켜 본 것이다.

글쓰기를 '미디어 텍스트 창작과 공유'의 과정으로 보고, 먼저 '적용 및 실천' 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 구성을 위한 효과적인 미디어를 각자 선택하도록 한다. 이때 소리, 영상, 이미지, 글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우선 선택한 매체 활용법부터 숙지하게 한다. 매체 접근과 활용법 숙지 역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한 활동 단계이다[24]. 이전 단계에서 읽고 묵상했던 성경의 스토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새롭게 스토리텔링 한다. 어떤 미디어를 써도 무방하지만 문자를 최대한 사용하도록 장려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나눔' 단계에서는 자신이 창작한 미디어 텍스트를 공동체 일원들과 온라인으로 공유한 후, 형식, 내용 면 모두에서 피드백 받고 개선한다. 이때 동료와 교수 침삭이 이루어진다. 이 침삭은 내용 면이든, 형식면이든 모두가 가능하다. 이때 타인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감상문 형식으로 제시하거나 논리적, 비판적 글쓰기 등 다양한 글쓰기를 사후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조되는 어떤 문자 글쓰기의 교육도 가능한 사후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단계, 깨달음을 실천하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들을 Vanhoozer의 이해에 적용해 보면 성경 스토리텔링은 문자적 해석, 즉 '의미(meaning)' 찾기를 하였지만, 후반의 '의의(significance)' 영역은 미디어 텍스트 글쓰기를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글쓰기 작업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기독교 대학 대학생들에게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뿐 아니라 미디어의 유능한 활용과 표현이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도 만족시키는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IV. 성경 스토리텔링 글쓰기 교육 활용 방안

[표 2]에서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미

디어 글쓰기 교육 방법은 자신의 스토리텔링의 쓰기와 더불어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 다양한 유형의 작문 과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을 기독교 대학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다양한 매체의 흥미성과 상호작용 증진

미디어 활용 글쓰기는 각종 미디어 텍스트에 대한 접근과 각 매체 사용법에 대한 이해가 첫 단계이다. 이때 미디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UCC, 광고, 사진, 노래 가사 등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이때 글 텍스트는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의 일부로 포섭되어 표현된다. 매체 자체가 주는 흥미성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매체에 대한 작동법을 자기 주도적으로 익히면서 흥미는 배가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글쓰기의 가장 큰 교육적 효과는 생산물의 상호 공유와 상호 작용성에 있다. 이는 대학생들의 온라인 참여적 흥미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침삭에도 깊이 관여한다. 흔히 침삭은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피하고 싶은 숙제처럼 생각되지만 동료 침삭이든 교수 침삭이든 온라인상에서는 매우 적극성 있고 활발한 상호 교류로 나타날 것이다. 이를 인터넷이라는 가상 커뮤니티가 허용하는 각자의 페르소나가 주는 용기와 즐거움 때문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25]. 이 점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글 텍스트 형태의 피드백이 될 경우 글쓰기 훈련으로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주요 미디어 텍스트의 디지털 미디어 글쓰기 활용방법 예시는 [표 3]과 같다.

[표 3]의 예시에서 만화 미디어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노아의 방주 부분을 읽고 그 속에 담긴 저자의 의미와 의의를 찾아보기 위해 주석서나 인터넷 등을 참고하고, 정리가 되면 요약적 글쓰기를 해본다. 또는 이를 현대식 이야기로 각색하여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이를 만화로 표현하게 한다.

표 3. 미디어텍스트의 디지털 미디어 글쓰기 활용

| 미디어 텍스트 | 활용 방법의 예 |
|---------|---|
| 만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읽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의의를 생각해본다. 이 때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현대식 이야기로 각색해 말해본다. •만화 장르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이해한다. •자신이 각색한 이야기를 만화 양식으로 표현한다. •교과목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교수자와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다. •완성된 작품을 최종적으로 게시하면 교수자와 동료들이 감상문(요약, 평론 등)을 댓글로 게시한다. •평가한다. |
| UCC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경에서 레아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읽으면서 사실을 관찰한다.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는다. •레아의 이야기를 요약하여 적어보고 교과목 블로그에 올려서 서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피드백 받아 수정한다. •UCC 장르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이해한다. •UCC에서 '레아 이야기'라는 작품을 찾아 관찰하고 평가한 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평론글 작성 가능) •교과목 블로그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교수자와 동료들의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다. •완성된 작품을 최종적으로 게시하면 교수자와 동료들이 평론을 댓글로 게시한다. •평가한다. |

만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만화 장르의 특징과 제작방법을 학습하는 선행 과제가 필요하다. 만화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학습자들끼리 한 그룹을 형성해 만화 제작에 대한 노하우와 정보 등을 나누고 그 효과성에 대해 토의하게 한다.

각자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만화로 제작하면 이를 블로그 등에 게시하고 타 학습자들의 평가나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여 최종 마무리한다.

4.2 개인 및 공동체의 치유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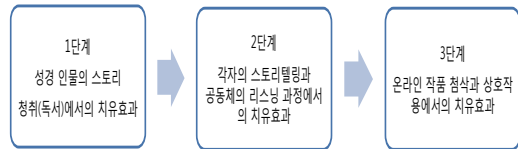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글쓰기는 1차적으로 개인적 성경 묵상에서 시작하여 그 묵상의 내용을 자신의 삶에 적용한 후, 이를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스토리텔링이다. 성경 스토리텔링을 읽고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치유가 일어난다. 즉, 자서전적 스토리텔링 쓰기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 정체성과 인지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며 치료 효과를 준다[10].

스토리를 텔링하는 자신도 이와 같이 치유 효과를 경험하지만, 자신이 들은 객관적이고 일반적 사실이 바로 옆 한 개인의 삶의 투영이라고 느끼게 되면 독자는 주

인공에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화 작용을 경험한다. 이는 스토리텔링이 가진 효과로서 독자나 청자는 텔러와의 동일화를 통해 주인공의 깨달음을 자신의 깨달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은 치유를 경험한다. 스토리는 거부감 없이 수용되어 감성을 자극하는 데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26] 나아가 스토리텔링은 일반 언어 구성체와는 다르게 독자나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텔러-리스너 사이의 상호 작용 속에 상호 창조도 가능하게 한다[27]. 이 점들은 상호 작용이 감성적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가장 큰 특징인 상호 작용성은 온라인 웹상에서 더 확장되고 최대화된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 교육은 동일화와 상호작용을 통한 치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표 4. 스토리텔링 수업의 3단계 치유 과정



4.3 글쓰기와 기독교 교육의 융합적 전문성

본 연구가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교육 영역, 기독교 교육 영역,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전문성 있는 교수자와 양질의 수업 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독교 대학의 경우, 현재 글쓰기 교육을 비롯한 교양 과목들은 수업 내용이나 교수자 역량에 있어 기독교 교육이나 신학적 전문성을 굳이 요구하지 않는다. 일반 대학의 교양 과목과 유사한 내용이 커리큘럼으로 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는 거리가 있다. 영성과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수업을 구성하고 그러한 정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면 교수자와 수업 내용이 각 교과목과 기독교적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융합적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본 연구가 개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 단계는 크게 보아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하는 단계와 글을 쓰는 단계, 즉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전문적 영역 모두를 탁월하게 교육할 수 있는 융합적 전문성은 시급하다 하겠다. [표 5]는 두 단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의 예시를 보여준다.

표 5.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

| 단계 |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의 예시 |
|--------|---|
| 기독교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경의 스토리 이해를 위한 다양한 주석, 정보 등을 활용하는 역량 •성경적 세계관을 투영해 그 의미를 끌어내는 역량 •성경의 스토리의 현대적 의미와 함축을 적절하게 끌어내어 개인적 삶에 적용하는 역량 •자신의 스토리텔링에 성경적 세계관을 투영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역량 |
| 글쓰기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미디어텍스트의 접근과 사용 역량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징, 장르 및 기술방법 등에 대한 지식 역량 •스토리텔링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 •글쓰기를 독려하고 평가, 첨삭할 수 있는 역량 |

4.4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문자 글쓰기 교육의 융합적 전문성

본 연구가 제시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 교육은 또한 언어적 글쓰기와 디지털 글쓰기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 대학의 경우 “교양 독서와 글쓰기” 류의 과목들은 미디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미디어 읽기, 쓰기” 관련 과목들은 언어적 글쓰기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

그러나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에서 글쓰기 지도를 한다는 본 연구의 개념 아래에서는 교수자나 수업의 내용이 언어적 글쓰기 역량의 신장과 아울러 각종 매체 활용의 환경과 생산, 평가와 피드백 등의 영역에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21C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 변화에 준하는 신개념의 포괄적 글쓰기에 대한 이해와 정보를 폭넓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융합적 수업이야말로 말로 서울신대와 같은 기독교 대학들, 혹은 많은 일반 대학들이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융합형 전문인,’ ‘창조적 세계인’ 같은 인재상에도 적합한 수업 형태를 구안하고 운영할 수 있다. 따

라서 교수자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나 생산과 수요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대학 수준 이상의 글쓰기 지도 역량을 갖추고 이를 수업에 적극 구성할 수 있어야 하겠다. [표 6]은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문자적 글쓰기 역량의 구체적 예시를 보여준다.

표 6.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2

| 단계 | 교수자의 전문적 역량의 예시 |
|-----------------|--|
|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미디어 텍스트에 접근하여 사용, 및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역량 •각 매체를 활용하여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역량 •미디어 텍스트를 생산하고 공유하고 피드백 받으며 수정할 수 있는 일련의 역량 •게시할 블로그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학습자가 게시한 미디어텍스트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며 상호 첨삭을 독려할 수 있는 역량. |
| 문자적 글쓰기 역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특징, 장르 및 기술방법 등에 대한 지식 역량 •다양한 글쓰기, 즉, 요약, 문학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성찰적 글쓰기 등의 지식과 실제 지도 방법적 역량 •글쓰기를 독려하고 평가, 첨삭할 수 있는 역량 •디지털 미디어 속의 문자적 융합에 관한 지식과 실제 방법적 역량 |

4.5 다층적이고 다양한 글쓰기 활용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 교육은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쓰는 것에 목적이 있다. 자서전적 내용이 가미된 창의적 글쓰기, 주로 픽션(Fiction), 즉 허구적 스토리를 구성하는 것에 1차적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학 글쓰기는 창의적 글쓰기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논리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요약하기 등의 학술적 글쓰기, 독서 감상문이나 문화 비평과 같은 성찰적 글쓰기, 자기 소개서 등의 실용적 글쓰기 등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 교육은 1차적 글쓰기 과정을 마친 후, 이를 웹상에서 공유하며 피드백 받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글쓰기로 내용을 전개시킬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웹상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호작용에 근거하고 자신의 생산물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온라인의 장점을

활용해,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한 부가적 글쓰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타인이 게시한 디지털 글쓰기에 대한 감상문 쓰기, 비평하기, 요약하기 등의 과제를 주어 2차적 글쓰기로 확장시키기가 용이하다. 어떤 유형과 장르의 글로도 변형이 가능하기에 디지털 글쓰기와 더불어 문자언어 글쓰기가 충분히 가능한, 침착까지도 용이한 교육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표 7]이 보여주듯이 ‘사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글쓰기는 다양하다. 예를 들어, 학생은 도입에서 읽은 성경 스토리텔링을 자신의 이야기로 각색하여 새로운 스토리를 써볼 수 있다. 또한 성경의 스토리텔링을 요약하는 글쓰기를 해볼 수도 있다. 사전 단계이므로 지나치게 긴 글을 쓰게 하거나 어려운 평가를 부과하지 않는다.

본격적인 글쓰기 단계에서는 자신이 선택한 미디어에 글쓰기 작업을 해 본다. 예를 들어 UCC 같은 경우, 기존에 있던 노랫말을 개사하거나 작사하여 자신의 스토리텔링을 자막으로 표현해 보도록 할 수 있고, 영화 한 장면의 대사를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녹음해 보거나 말풍선을 사용해 새 이야기로 패러디해 보는 활동도 가능하다. 또는, 아예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해 간단한 영상을 연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외에도 자신이 작업한 콘텐츠를 소개해 보는 실용적 글쓰기도 가능하다.

사후단계에서는 자신이 작성한 콘텐츠를 블로그에 게시하여 타 학습자들과 공유하여 읽도록 하고, 타 학습자들은 이 게시물의 줄거리를 요약하여 비밀글로 답글을 달게 할 수 있다. 또는 감상문을 쓰게 하거나 평론을 쓰게 해 볼 수도 있다.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제안해 보게도 할 수 있다. 이 때 교수자도 타 학습자와 동등하게 자신의 답글을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원 게시자는 이 모든 피드백을 통합해 개선한 후, 일정 시간 이후 다시 게시하게 한다. 이 최종 결과물이 평가 자료가 되며, 타 학습자들의 피드백의 성실도도 평가 자료가 된다.

표 7. 단계별 다양한 문자 글쓰기

| 단계 | 활용 가능한 글쓰기 장르 |
|-------------|---|
| 사전 및 글쓰기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토리텔링 등의 창의적 글쓰기 •요약적 글쓰기 •미디어 융합적 글쓰기 •소개하기 등의 실용적 글쓰기 등 |
| 사후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로그 게시 - 요약 등의 설명적 글쓰기, •타 게시물에 대한 평론 등의 논리적 글쓰기, 감상 등의 성찰적 글쓰기 등 |

V.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과 교육 이념, 인재상에 적합한 글쓰기 교육 형태를 제안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스토리텔링을 자료로 하여 창의적 글쓰기를 비롯한 다양한 글쓰기로 유도할 수 있는 유형을 개발한 것인데, 특히 현 시대의 교육 화두인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접목한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디지털 글쓰기’ 교육 형태를 제안한 것이다.

나아가 이 교육 형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스토리텔링 혹은 온라인 웹상의 상호 작용성이 가진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다. 둘째, 스토리텔링이 가지는 개인과 공동체의 치유적 효과를 수업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셋째, 글쓰기와 기독교 교육(신학)의 영역 모두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를 확보하고 적합한 교육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넷째, 미디어 리터러시와 글쓰기 영역 모두의 전문성 역시 확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의적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쓰기로 확장시켜 적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처럼 다양한 역량을 갖춘 교수 확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는 현재 국문학의 영역으로 점점 포함되고 있는 추세이고, 신학대학의 많은 교원들이 신학대학 출신들이기 때문에 교원 확보가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 자신이 ‘글쓰기 교육’에 중심을 잡으면서도 융합적 영역을 전문성 있고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다. 문자 글쓰기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성찰 및 논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할 몫은 교원에게 고스란히 맡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상 성경 스토리텔링 활용 글쓰기 형태의 예를 개념적으로 제시하였으나 지면상 이를 적용한 수업의 효과성은 포괄하지 못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의 과제로 남긴다.

참 고 문 헌

- [1] http://www.stu.ac.kr/CmsHome/stu03_01_10.eznic, 교양과목 소개 참조.
- [2] F. E. Gablein, *The Pattern of God's Truth: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ning*, ACSI. 1968.
- [3] http://www.stu.ac.kr/CmsHome/stu03_01_10.eznic, 교과목 및 교육과정 참조.
- [4]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Vol.91, pp.159-186, 2017.
- [5] M. Miller, *Experimental Storytelling: (Re)Discovering Narrative to Communicate God's Message*, Grand Rapid, MI: Zondervan, 2004.
- [6] 최시한, “스토리텔링 교육의 방법 모색: 스토리와 그 처음상황 설정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Vol.24, pp.419-436, 2009.
- [7] 장상용, *전방위 문화기획자를 위한 스토리텔링 쓰기*, 해냄, 2010.
- [8] 최시한, *스토리텔링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과 지성사, 2015.
- [9] 조정래, *스토리텔링 멘토링, 행복한 미래*, 2013.
- [10] 박승희, “인문학적 글쓰기와 스토리텔링, 그 가능성을 위한 초고,” *한국사상과 문화*, Vol.51, pp.55-90, 2010.
- [11] 김영래, “스토리텔링과 기독교교육: 스토리텔링을 통한 성경교육의 연구,” *신학과 세계*, Vol.91, pp.159-186, 2017.
- [12] E. Wiesel, *The Gates of the Forest*, New York: Schocken Books, 1995.
- [13] A. Leveen, “Storytelling in the Bible,” *The Jewish Bible*, Vol.57, 2008. https://www.sbl-site.org/assets/pdfs/TB4_Storytelling_AL.pdf.
- [14] L. Ryken, *How Bible Stories Work: A Guided Study of Biblical Narrative*, Wooster, OH: Weaver Book Company, 2015.
- [15] 박인식, *개혁주의 복음전도와 양육*,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 2010.
- [16] 강영한, *포스트모던 시대의 세계관*,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9.
- [17] K.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Michigan: Zondervan, 1998.
- [18] 이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문학 읽기 교육 모형 개발과 모형 적용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19] K. Vanhoozer, *Everyday Theology*, 윤석인 역, 문화신학, 부흥과 개혁사, 2007.
- [20] 민춘기, “뉴미디어 시대의 소통과 글쓰기에 대하여,” *교양교육연구*, Vol.9, No.1, pp.181-212, 2015.
- [21] H. Cassie and P. Sarah, *Digital Literacy across the Curriculum, a Futurelab Handbook*, Futurelab Innovation in Education.
- [22] <http://digitalwriting101.net/content/working-definition-of-digital-literacy-for-college-students/>
- [23] 김지영, “디지털 시대 사진쓰기의 의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4, pp.156-163, 2012.
- [24] 이란, 현은자, “한국형 미디어교육 모형의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3, pp.462-473, 2017.
- [25] P. Wallace, *The Psychology of the Internet*,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26] 정진희, “문자도에 대체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열린정신인문학연구*, Vol.19, pp.155-174, 2018.
- [27] 이인화, *한국형 디지털 스토리텔링*, 살림출판사, 2005.

저 자 소 개

이 란(Ran Lee)

정회원



- 1994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 Univ. of Edinburgh Faculty of Education. (Msc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2017년 :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전공(문학석사)
 - 2017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문학교육전공(철학박사)
 - 2018년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CTL 글쓰기 지도교수
- <관심분야> : 독서와 글쓰기, 매체 언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